GGM 그룹장들 "우리 할 일은 생산 전념해 신뢰 쌓는 것"

노조원들 지난 13일 '상경 집회'에 우려 담긴 유인물 배부

"절반도 안되는 노조, 회사 대표인 듯 주장하는 것 못마땅"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실천협) 소속 파트·그룹장들이 노조 상경 집회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비노조원이지만 대리급으로 노조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룹장들이 회사의 위기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불황을 넘어서기 위한 '생존의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GGM에 따르면 생산 라인 파트·그룹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실천협 위원들은 지난 14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내식당 입구에서 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실천협은 '우리가 할 일은 생산에 전념해 고객사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GGM은 고객사로부터 생산 물량을 수주받아 운영하는 위탁 생산 회사"라며 "상경 집회는 우리 일터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대다수 사원의 뜻을 등지고 생계 일자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천협은 "GGM은 지금 우리의 염원인 2교대 생산 체제로 회사의 지속가능과 고용 안정을 이룰 것인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사원들은 (상경 투쟁을 한) 일부의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협은 또 "내부의 불협화음을 먼저 없애야 GGM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진정 우리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일"이라며 "전 사원이 바라는 2교대 생산 체제와 추가 차종을 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은 대기 중인 주문 물량을 계획대로 생산해 우리에게 위탁한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출범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준수라는 대전제하에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때 우리의 뜻이 더욱 멀리, 깊이 전달될 수 있다"며 "우리는 GGM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하나된 힘으로 회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 라인 그룹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점심시간 구내식당 앞에서 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GGM 제공〉

현재 GGM 총 직원 680여명 중 노조원은 220여명으로, 3분의 2 이상의 비노조원이 노조의 상경 투쟁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실천협의 주장이다.

실천협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부터 2교대를 준비하고 올해 들어 후속 차종 생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노조가 고객사 본사에 가서 상경 집회를 했다"며 "전체 직원 3분의 1도 안 되는 노조원이 700명 가까운 전체 직원을 대변하겠다며 상경 투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는 설립 때부터 '상생'을 모토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해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노조를 인정하는 순간 협정서의 '상생'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직원들은 35만대 달성까지 협정서를 준수한다는 내용에 서명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GGM지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 보장과 2교대제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회사 측 태도 변화가 없으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은행·상호금융 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올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새 예금보험료율 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보료율을 높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커 소비자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 품질관리 기술세미나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조합)은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업으로 '2025년 레미콘 품질관리 기술세미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조합은 이날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세미나를 열고 레미콘 실무자 품질 능력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김호두 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이슈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만 레미콘 업계 스스로 기술 개발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수요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으면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레미콘 산업이 미래 건설 환경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미콘 품질의 선진화와 품질 경쟁력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성년의날 맞아 젠지세대 취향 겨냥 향수 등 다양한 선물 선보여

광주신세계는 15일 "올해 성년의 날(5월 19일)을 앞두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의류, 향수, 잡화 등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

특히 올해는 2006년생이 성년이 되는 해로, 광주신세계는 1990년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태어난 '젠지' 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개성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상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에서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가 플라워 가디건 티를 선보인다. 플라워 가디건 티는 개성 있는 꽃무늬 패턴에 목과 소매에는 레이스를 더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광주신세계 본관 5층 '레이브' 매장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아 젊은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숄더백을 레이브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낸 '헤일리 숄더백'을 만나볼 수 있다. 헤일리 숄더백은 소가죽을 이용해 착용감을 높였고, 크랙 무늬와 광택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본관 3층에 문을 연 스위스 헤리티지 워치 브랜드 '티쏘'에서는 'PRX 쿼츠 모델'을 내놨다. 해당 모델은 남성용(40mm)과 여성용(25mm)으로 구분돼 성년을 맞은 커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성년의 날 대표 선물 품목으로 꼽히는 향수는 광주신세계 본관 2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프리지아 향수, '바이레도'는 블랑쉬 모델 등의 수요가 많다.

심한성 광주신세계 잡화팀장은 "자신만의 멋을 추구하는 젠지세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 취임…4대 비전 제시

"농촌다움 회복·농지은행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4대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취임식에서 김 신임 사장은 사람이 북적이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안으로는 흔들림 없는 농업 밖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업 구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농어업 기반 마련, 국민과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공사로 도약 등 4대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김 신임 사장은 4대 경영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농촌다움 회복, 농지은행 확대, 밭작물 생산 기반 정비, 해외사업 확장,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마련, 스마트 기술의 농업 분야 확대 적용, 국민 체감하는 성과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우리 농어업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그 최일선에는 항상 농어촌공사가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직원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28년 5월 13일까지 3년 임기인 김 신임 사장은 충북 진천군 출신으로,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에서 농촌정책과장, 차관 등을 역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국내 10개 은행과 퇴직연금 융자지원 업무협약 중소기업 보증료 차감·우대금리

광주은행은 "서울시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고재덕 광주은행 부행장 등 10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자금 마련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료 차감 및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적립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수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흑자

지난달 광주·전남의 수출·수입액이 모두 감소했는데도, 무역수지는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5년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 감소한 50억 3800만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40억 4800만 달러였다.

지난달 광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16억 4700만 달러, 수입은 22.9% 증가한 6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56.4%), 기계류(51.7%), 수송 장비(10.6%), 타이어(8.5%)가 증가하며 수출을 이끌었고, 가전제품(34.6%)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74.2%), 반도체(29.7%), 가전제품(26.3%)이 늘어났고 화공품(11.4%)과 기계류(2.3%)는 줄었다. 수출은 동남아(49.8%)·중국(18.3%)·EU(3.7%)·미국(2.4%)에서 늘었고 중남미(6.3%)가 감소했다. 수입은 일본(27.4%)·동남아(26.2%)·미국(21.6%)·EU(10.1%)·중국(6.8%) 모두 증가했다.

전남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한 33억 9100만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33억 8700만 달러였다.

수출에서는 기계류(77.6%), 수송장비(25.5%), 철강 제품(3.5%)이 견인했고, 화공품(27.3%)과 석유제품(21.3%)은 줄었다. 수입은 석유제품(23.0%), 철광(1.2%)이 많았고 석탄(46.6%), 화공품(12.9%), 원유(5.2%)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EU(92.4%)가 증가했고 동남아(30.8%)·일본(29.8%)·중국(13.9%)·미국(8.9%)에서 떨어졌다. 수입의 경우 미국(3.8%)이 늘어났고 동남아(23.1%)·중국(18.5%)·호주(13.1%)·중동(7.1%)은 줄었다.

전남에서 미국 수출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아직 유예 기간이지만 미국발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없이 10년으로 개선해야"

광주경총 네번째 대선 공약 제시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15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도를 재입국 없이 10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광주경총은 이날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분야를 네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E-9(고용허가제) 비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라 기존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과 엄격한 규제 관리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개선 권고한 상태다.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9 비자는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 활동이 보장되며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 활동 기간 고용노동부의 연장 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재입국 특별 고용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1.36 (-19.21)
↓	코스닥	733.23 (-5.82)
↑	금리 (국고채 39년)	2.362 (+0.011)
↓	환율 (USD)	1397.40 (-22.80)

〈오후 4시 49분 기준〉